

# “미중 무역전쟁 탓 세계 경제위기 온다”

### 글로벌 재무장관들 경고

### 프랑스 “세계 전역 경기둔화”

### 독일 “기업들 투자 보류”

세계 주요 경제권의 재무장관들이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쿠오카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를 두고 이런 걱정을 토로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 전면적 무역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메르 장관은 “내 생각으로는 G20 모두가 이런 상황이 경제위기, 경제성장 결핍, 세계

전역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의 통상정책 때문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라프 솔츠 독일 재무부 장관은 “상황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경제지표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모두 안다”며 “통상갈등에서 탈출할 길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와 수출입 제한 조치의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솔츠 장관은 “이런 불안정성의 간접적 영향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며 통상갈등이 경제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도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도 기술 패권 다툼으로 번져 가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유탄을 맞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터져 나왔다.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중국이 카놀라 무역에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카놀라의 품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 대한 무역 대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당국은 중국 통상장비 업체 화웨이의 부회장인 망안저우를 미국 수배령에 따라 작년에 체포해 현재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캐나다산 카놀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 부회장의 체포와 인도 심리에 대한 중국의 압력 행사라는 관측이 많다.

주요 경제권의 재무장관들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기구들도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글로벌 경제

의 부진을 경고하면서 무역분쟁을 원형으로 지목했다. WB는 무역전쟁 때문에 글로벌 무역 증가세가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때문에 내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이 추가 관세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할 때 0.5%, 4550억달러(539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미중 갈등이 해소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NYT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통상 규칙을 다시 쓰려고 작심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G20 회의에서 “세계 일대에서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경기둔화가 현재 무역갈등의 결과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85〉 이준욱

이준욱(885-926)은 산서성 음현 출신으로 사타족이다. 부친 이극용을 도와 5대 시기 후당(後唐)을 건국했다.

사타족은 당 왕조에 귀순한 돌궐의 별부다. 원래 성은 주사로 조부 주사적 말을 밟고 광송도 부자를 죽였다. 정치는 멀리하고 가마와 황을 배웠다. 각지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23년 하남을 장전이의 건의에 따라 낙양으로 천도했다. 광대들 중에 총애하는 자가 많았으며 스스로 얼굴에 붓과 먹을 바르고 광대들과 뜰에서 놀이를 즐겼다. 전투에서 용맹했으며 말을 타며 활을 쏘는 기병대를 조직화하는데 성공했다. 남쪽의 후량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후량을 건국한 주전충은 황음무도한 생활로 912년 차남 주우규에게 살해되

과 갈등을 빚었다. 환관 향연사를 보내 실상을 파악하려 하였다. 광송도가 거만하게 그를 대하자 돌아와 “광송도가 권력을 오로지 해, 왕께서는 몸을 호랑이와 이리의 입에 맡기고 계십니다”고 고자질하였다. 장충은 환관의 말을 믿고 광송도 부자를 죽였다. 정치는 멀리하고 가마와 황을 배웠다. 각지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23년 하남을 장전이의 건의에 따라 낙양으로 천도했다. 광대들 중에 총애하는 자가 많았으며 스스로 얼굴에 붓과 먹을 바르고 광대들과 뜰에서 놀이를 즐겼다. 전투에서 용맹했으며 말을 타며 활을 쏘는 기병대를 조직화하는데 성공했다. 남쪽의 후량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후량을 건국한 주전충은 황음무도한 생활로 912년 차남 주우규에게 살해되

### 사타족 출신, 부친 이극용 도와 후당 건국

었다. 양자 주우문을 총애해 주우규를 내주자사로 좌천시키는데 따른 궁중 쿠데타였다. 이준욱의 맹공에 후량은 건국 16년만에 멸망했다. 이준욱은 허북의 군 유수광을 무너뜨렸다. 923년 허북의 위주에서 제위에 올라 국호를 후당으로 연호를 개원으로 정했다. 국호를 전대신 당으로 정한 것은 이준욱이 당의 제도와 문화에 깊이 심취했기 때문이다.

장종(莊宗)으로 불리었는데 당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무엇보다도 당을 멸망으로 이끈 환관제를 부활하였다. 현종의 이원(梨園)을 모방해 왕궁의 연극도 부활했다. 스스로 이전하라는 예명으로 연극에 출연하는 기행도 연출했다. 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을 감독하기 위해 환관을 감군(監軍)으로 파견했다. 용맹한 사타족의 장군임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부와 장종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궁중의 사치로 인해 재정이 부족해 지휘관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불하지 못해 불만이 커졌다. 장충은 뛰어난 무인이었으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나 원대한 계획이 없었다.

그 와중에 사천 토벌에 성공했다. 장남 이계급을 토벌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지만 실제 전투는 도초토사 광송도가 지휘했다. 광송도는 환관 세력

다. 이사원이 그들을 꾸짖으며 원하는 바가 무엇인냐고 물었다. 병사들은 “장사들은 주상을 10년동안 따르면서 백 번 싸웠고 천하를 얻었습니다. 지금 주상은 은혜를 버리고 위엄만 부리고 있습니다. 공께서는 군사와 백성의 주군이 되어주시시오”라고 간청했다. 참모석경당이 “무릇 일이란 과감하게 결정하면 성공하고 머뭇거리면 실패합니다”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사원이 결심하고 군사를 모으니 많은 세력이 호응했다. 장충은 이사원이 이미 대량을 점령하고 여러 군대가 이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탄식했다. 926년 4월 종마직지위사 광송경이 난을 일으키자 주변의 신하와 장군들이 모두 숨어버렸다. 얼마 후 장충은 반군이 쓴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사원이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여러 장수들에게 “주상이 평소 용맹해 군인의 마음을 얻었지만 여러 소인배들에게 가려지고 미혹되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낙양에 들어가 제위에 오르니 오대의 명군으로 평가되는 명종이다. 명종은 재상 공경을 참수했다. 엄한 법으로 백성을 맞살게 굴고 무거운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이 원성의 대상이 된 김급을 주살해 민심을 회복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9일(현지시간) 홍콩 도심에서 '송환 반대'(No Extradition)라고 쓰인 빨간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홍콩 반환 후 최대 103만명 '범죄인 인도' 반대 집회

### 2014년 우산 혁명보다 규모 커 12개국 29개 도시서 연대집회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에 100만 명이 넘는 홍콩인이 참가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집회가 전 세계에서 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는 같은 날 전 세계 12개 국가 및 지역, 29개 도시에서도 열렸다.

미국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 캐나다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호주는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브리즈번에서, 그리고 독일 베를린, 대만 타이베이, 일본 도쿄 등에서 지지 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전날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출발해 홍콩 정부청사까지 행진하면서 벌인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으로 103만 명에 달한다. 홍콩 시민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후 최대 규모 시위이기도 하다.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홍콩 입법회는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